



미술은 다른 어느 예술의 생산물보다 상품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하게 한다. 거래에 의한 미술의 소유형태는 매우 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화가를 중심으로 한 미술시장구조가 형성된 것은 서구의 경우 시민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부터이다.

미술의 풍부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능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점차 전시장미술로 고착화되면서 이른바 '순수미술', '고급미술'로서 미술시장이 형성되었다. 화가는 화가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제시하고 조직된 전시회를 통해 명망을 얻게되면 작품의 소유자를 만나게 되며 이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한다. 화상은 어떤 의미에서든 작품에서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잃어내버릴 때 정신적 가치에 대한 소유를 통해 문화적 만족을 얻는다. 이러한 일련의 소통체계 속에서 미술은 작품이 드러내는 미적 형식과 내용, 관람자에게 주는 정서적 충격과 미의식의 형성 등 작품이 던져주는 사회적 의미와는 관계없이 화상과 비평가, 언론에 의해 형성되는 평가 과정을 거쳐 상품적 가치가 형성

된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우리의 문화구조에서 전시장미술의 생산과 소비방식은 화가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인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어진다. 제3세계로서 서구적인 근대화의 과정속

건강성 획득해야할 미술의 소통구조 상업주의에 함몰될 가능성 내포

에서 모순구조를 증폭시키는 우리의 미술문화 또한 이질적인 문화의 침투와 함께 심화된 상품의 논리(소유의 능력이 있는 상층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속에 뒤러린 구조를 형성시켜왔다. 이러한 모순구조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된 80년대의 미술운동이 10년을 지나면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에서 대안 문화로서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체제와 소통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립되고 특정한 소유 계층이 형성됨으로써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담기 시작하며, 특정계층에 소통되는 일정한 기준이 예술

'제도화'와 '대중화'의 갈등

문화시론 대중화되는 민중미술

비평과 언론, 상업적 유통구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이의제기와 대안적인 문화구조의 창출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상품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온 제도적 장치에 의해 유통되는 미술품의 상품화에 대한 거부와 함께 새로운 시각체제를 담은 미술품의 생산과 소통방식의 확산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통기능의 새로운 단초를 제시했던 민중미술작품이 형성된 제도적 구조를

거가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현실적인 사회구조는 일면적이 아니며 미술이 소통시켜야 구조 또한 다층적이다. 민중미술의 시장성확보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단선적인 이해의 측면이 아니라 심화되는 독자본주의 의회에서 민중문화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중요한 지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미술운동이 단순히 제도에 대한 반(Ani-)제도로서 비판적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보편적 삶 속에서, 그리고 시작문화전반과 미술구조전반에서 전면적으로 우리의 의식과 삶의 체제를 변형시키려는 노력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적 미술운동은 사회의 구조에 대한 총체적 이해속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 속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중미술로서의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반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급화된 미감에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완결성을 요구하는 미술시장의 제도적 성격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미술의 소통형태인 전시장미술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의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생산과 유통방식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문화일반의 성격 그리고 그 속에서 소통되는 예술작품의 성격까지 결정적으로 좌우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더니즘의 목표였던 '새로운'을 향한 인식의 지평의 확대'라는 이념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상품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데올로기자체를 증폭시켜버리는 자본주의의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낱 신상품 개발로 추락해버렸듯이 미술시장 속에서의 민중미술작품의 상업적 거래가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상업주의적 의도에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도처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진성 <미술평론가>

연재소설 <4>

트럭은 수색조를 싣고 원주 시내를 거쳐 치악산 입구로 갔다. 암갈색 나무들 사이로 울퉁게 뻗은 소나무들이 당당하게 서 있고 계곡마다 얽은 안개가 서려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수색조는 각각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다. 계곡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마치 파리를 속으로 빨라드는 파리들처럼 보였다. 발밑에서 습한 낙엽이 밟히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다. "발치산 토벌대 같은"이라고 누군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해는 벌써 시내 상공쯤에 떠 있었다. 심 분간 휴식에 들어가자 고압전선 하나가 고압선을 데리고 장난하기 시작했다. 애인따먹기란 놀이였다. 돌로 지정된 나무를 맞히는 놀이로서 많이 맞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애인을 갖는다는 놀이였다. 먼저 고압선이 돌을 던져 나무에 맞았다. 그러자 고압선은 돌을 던지지 않고 말했다.

일병의 탈영에 대해 그 책임을 동주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 동주는 심한 욕설과 구타를 당했다. 다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동주는 심한 격정을 삭이고 있었다. 험한 산세를 뚫고 가면 갈수록 동주의 마음은 답답해져 갔다. 자꾸, 김일병을 궁지에 몰아넣는 기분이었다. 굵은 덩굴뿌리가 바위들을 휘감고 햇살은 사정이 같은 나무가지 사이를 뚫고 있었다. 동주는 이 삭막한 산 속 어디엔가 있을 김일병을 생각하면서 말다박았다. "발치산 토벌대 같은"이라고 누군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해는 벌써 시내 상공쯤에 떠 있었다. 심 분간 휴식에 들어가자 고압전선 하나가 고압선을 데리고 장난하기 시작했다. 애인따먹기란 놀이였다. 돌로 지정된 나무를 맞히는 놀이로서 많이 맞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애인을 갖는다는 놀이였다. 먼저 고압선이 돌을 던져 나무에 맞았다. 그러자 고압선은 돌을 던지지 않고 말했다.

하병장은 느닷없이 발걸음을 해냈다. 고압선은 오뚜기처럼 제 자리를 지켰고 하병장의 구타는 계속 되었다. 고압선이 다리를 심하게 찔고 있었다. 동주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순간 하병장이 휘두르는 손을 날아갔다. "물 군번이 어딴습니까. 왜 쫓병이러니 이유 하나 때문에 맞아 합니까. 왜! 왜!" 동주는 거칠게 소리치며 하병장을 내동댕이쳤다. 갑작스런 동주의 행동에 다들 놀라워하고 있었다. 동주는 고압선을 데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 것처럼 빠르게 걷고 있었다. 하병장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다. 막 큰 바위를 들었을 때 동주는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하병장을 향해 들어섰다. 동주는 단장을 꺼냈다. 그것을 본 하병장이 기겁을 하면서 멈춰섰다. 동주는 무표정하게 탄창을 총에 꽂았다. 마른 낙엽이 스산한 소리를 내며 구르며 있었다. 하병장이 다리를 심하게 찔면서 있었다. 동주는 자물쇠를 풀



글: 오완진 <연재>
"내 한번에 너는 세번이다."
"에이- 그런 게임이 어딴 겁니까?"
"여기 있다면, 왜 파? 꼬면 일찍오시지 - 까리만 가는거야, 알겠어?"
고압선이 대검으로 고압선의 철모를 치며 말했다. 여지 놀이가 시작되었다. 동주는 바위에 등을 기대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상하게도 다리가 저려왔다.
"아- 88 퍼우네"
하병장이 동주, 걸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휴가 복귀하면서 사문것이 남았었습니다."
"누가 고압전 문자고 했나. 그런것 있을 상남을 해야지. 누그 자속 평소부터 고압 일기를 벤벤이 비빌만도 생각않겠지."
그는 동주에게서 건네받은 담배를 빠진 이빨 사이에, 끼우면서 계속 말했다.
"그 그때 내가 고압하는 거라? 그 노루 자속이랑 - 뭘 아니가 영?"
개머리 띠이 동주의 철모에 사정없이 날아 들었다. 그는 김

미묘하고 졸업작품전 평가

급년 4학년 졸업작품은 표현 가능한 모든 재료와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동서의 예술정신을 이해하고 그 만남의 가능성을 조형적 표현에서 이루어 보겠다는 뜻이 있었다. 그들의 작품은 재래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진술한 정적의 작품의도에 진취적기상을 발판으로 경회미술인의 건설적추적을 이루고자 하는데도 있었다.

건축에서도 젊음과 시간과 정열을, 오직 새로운 미의식에서 살아가는 어느 구도자의 모습을 체현하려 하였다. 자신의 이미지를 다양한 재료와 기법에 의하여 창출하려는 서양화의 경우, 확실히 주관적이고 상징적으로 그들의 회화세계를 활기있게 보여주었으며 무

는 노작의 결과였다. 그들은 다양한 재료를 연구하여 물레의 모든 물질을 미의 세계로 환원시키려하였던 것이 없었던 것은, 무척이한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그 미의 힘을 받고 있었다. 한국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재래의 제에서 벗어나 인물과 풍경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험적 구상과 추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은 달빛같은 이상으로, 분출하려는 격동의 감성을 정순한 색채로 외연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일체성을 가지고있는 조소작품은 그들의 제의도에서부터 엄청난 흥분을 보여주었다. 폼과 이상을 전통적인 우리의 것으로 형상화시킨 그들의 의욕은 쇠와 나무와 돌과 동판 따위를 마치 딱같이 주물렀으며 이질적 재료의 총합적 결합으로 시도되는 그들의 대작들은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인간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자기세계 유감없이 발휘"

자유로운 재료·기법으로 미의세계 체험
작업이 선행되어 수묵과 필선은 이미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고 드러나는듯한 숨어있는 색채는 여러형상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의지를 개척하는 예고지로 그 모습을 보여 주고있다. 그들은 고요하고 잔잔한 화선지에서 벌써 자유로운 재료와 기법의 선택으로 화면속의 자유를 얻었고 필면적 우연성의 기법에서 그들은 즐거운 미의 세계를 체현하고 있었다. 자·간접으로 그 미의 기능을 함께 연구하는 디자인작품에서도 수준높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급년 졸업작품은 확실히 자기세계를 유감없이 발휘한 개성적인 독창물이었다. 밝고 활기찬 새생명을 지닌 작품들 앞에서 있음직한 미술관의 영구적 작품전시를 기대한다.
박재호 <사범대학교수·서양화>

동아리 가을공연 활발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자 양평퍼포 동아리와 각과 등의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극 연구회 '필멸'은 신춘원 학생회관 로비에서 21일 오후 2시에 '봉산탈춤 전 7과중에서 제 2과장인 팔복중춤(일명:떡중과장)을 공연한다. 또한 경희대학교예술연구회(회장:조용기)는 '스트립티스'와 '페슈니아를 짓밟은 거인'을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1시부터 2호관 한누리극장에서 공연한다. 이번공연은 1학년학생들의 workshop공

연으로 열리게 된다. 체육대학 무용학도 '부부발레'단의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 공연은 중앙극장극장에서 오늘 오후 7시에 시작된다. 그밖에도 무용가 권금향(체대·무용학과)씨의 춤 '독백한춤'도 21일과 22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열리는 대체로 공연으로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있다. <계속>

「맥스웰켄」만이 어울리는 시간이 있다.

젊은 가슴이 먼저 감동을 느낄때 - 캔을 열면 가슴을 적셔주는 맥스웰의 향기 맥스웰 캔커피만의 청량감으로 맥스웰 캔커피만의 또다른 느낌으로 기분까지 새로워지고 싶다면, 정통커피음료 맥스웰캔커피 - 커피의 명가 동서식품이 만듭니다.

커피를 느낄때 언제나 맥스웰 캔커피